



2020년도
제10호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코로나19

예방수칙에 따라

대규모 대회와

행사를 연기하고

있는 체육계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1 체육회 및 체육단체

'체육인 호소문' 발표



2 문화체육관광부

코로나19 추가 지원책 마련 중



3 체육공단

코로나 피해업체 500억 지원



4 서울시 체육회장

"모든 공약 실현에 최선"



5 체육계 이모저모



대한체육회 및 체육단체 '체육인 호소문' 발표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최근 회원종목단체 및 체육시설 관계자, 시도체육회장단, 공공스포츠클럽 관계자 등과 차례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체육계 피해 현황 및 지원 대책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중앙일보
최용재 기자

대한체육회 및 체육계 관계자들은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며 국회와 정부 차원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간곡히 요청하는 '체육인 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 전문

건강을 넘어 생계를 위협하는 코로나19, 체육계 종사자들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증유의 위기 속에서도 전 세계에 모범을 보이며 감염증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 및 방역당국, 의료진의 경이로운 노고와 헌신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감내하면서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캠페인에 동참하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체육인들 역시 솔선수범하여 위생 및 예방수칙을 지키고 대규모 대회와 행사를 연기하는 등 코로나19 종식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체육인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민간 체육계 종사자들이 가장 큰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 체육시설 등에 한시적 운영 중단을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하는 시설은 전국 2만4천여 곳에 달합니다. 이 밖에도 100여 개 공공스포츠클럽은 물론, 수많은 체육기관 및 시설들이 휴장을 통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료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3754010>



하지만 휴장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 체육계 종사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어, 이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대한체육회와 각종 체육단체는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뜻을 모으고 있는 체육계 종사자들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간곡히 호소합니다.

코로나19의 여파는 국민 건강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국민 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체육계에 대해 국회와 정부에서 세심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소유의 건물 임대료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체와 민간 분야에서도 체육시설을 비롯한 영세시설 및 업체에 대한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해줄 것을 권고하는 등 이웃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적인 면역력을 증진하려면 꾸준한 스포츠 활동이 필요합니다. 발열체크, 방역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스포츠클럽에 대해 제한적 개장을 허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미집행된 체육 관련 예산을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영세체육인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즉각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근대 체육 100년을 맞는 해입니다. 긴 역사 속에서 체육인들은 국가적 위기 상황마다 늘 힘을 모았습니다. 스포츠로 건강한 대한민국. 스포츠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체육계 종사자들을 향한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체육인들은 국민 모두와 고통을 분담하고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20년 4월 14일
대한체육회 임직원
17개 시·도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
전국스포츠클럽협의회 일동

자료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3754010>



문체부 “체육업계 면담 통해 코로나 19 추가 지원책 마련 중”

체육계가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낸 것과 관련해 정부는 관련업계와 소통하며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최근 지속적인 체육업계와 면담 등을 통해 코로나19 피해와 애로 사항 등을 듣고 있다."면서 "당장 시급한 지원 사항과 코로나19 종식 뒤 업계 활성화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체부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운영자금 특별용자 예산 200억 원이 소진되자 지난주 추가로 300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 관계자는 "방역물품 지원 예산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코로나19로 미집행 된 예산을 돌려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코로나19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발열 체크와 방역 등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스포츠클럽의 제한적 개장을 허용해 달라는 체육계 요청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지금도 체육시설 이용은 전면 금지 사항은 아니지만 방역이 최우선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KBS NEWS
권재민 기자

jaemins@kbs.co.kr

자료 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24590>

체육공단, 코로나 피해업체 500억원 지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업체에 특별융자 500억 원을 지원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3월 12일부터 4월 3일까지 코로나19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접수받은 특별융자 신청을 2차에 걸쳐 심사 및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는 스포츠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이번 융자지원 사업은 총 1229개 기업이 신청했다. 공단은 이 중 1045개 기업에 500억 원 규모의 융자 결정을 최종 통보했다. 2차 특별융자 지원 대상에 선정된 피해업체는 결정통지서를 지참해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받아 이르면 오는 16일부터 대출금을 수령할 수 있다.

공단은 코로나19 피해업체 대상 특별융자 500억 원을 지원하고, 하반기에 1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해 1061억 원 규모의 융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공단은 지난달 461억 원 규모의 일반융자 1차 지원을 시행했다.

공단은 아울러 원금상환일이 1년 이내 도래하는 145억 원가량의 기존 융자 851건의 만기를 12개월로 연장하고 상환을 유예할 예정이다. 공단은 “다각적인 지원을 위하여 올해 2월 19일부터 코로나19 극복 스포츠기업 긴급지원센터를 운영, 특별융자와 법률·노무 자문 및 동반성장몰 입점을 통한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알렸다.



문화일보
정세영 기자

공약이행보고서 접수, 박원하 서울시 체육회장 “모든 공약 실현에 최선”

민선 1기 서울특별시체육회장 공약 이행 준비위원회가 16일 공식활동을 종료하고 서울특별시체육회에 준비위원회 보고서를 전달했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특별시체육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최종 보고회에 박원하 서울특별시체육회장을 비롯해 이대택 위원장(국민대학교 교수), 김상철 위원(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최준영 위원(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함은주 위원(문화연대 집행위원) 등 준비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번에 전달된 보고서에는 서울시민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참여하는 스포츠를 만든다는 의미에서 ‘사람중심’, ‘기반튼튼’, ‘시민행복’이라는 공약 비전과 ‘서울시 스포츠기본조례 제정’ 등 16개 공약에 대한 20개 세부과제 이행전략, 그리고 공약 이행성 제고를 위한 권고과제 등이 담겼다.

박원하 서울특별시체육회장은 “최초의 민선 서울특별시체육회 공약이행보고서를 전달받게 되어 기대된다.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모든 공약들이 임기 내 모두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회원종목단체 및 자치구체육회 등에 직접 찾아가 현장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보고서에 제시된 세부과제 이행전략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kenny@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배우근 기자

[체육계 이모저모]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가 코로나19 여파로 K리그 개막이 무기한 연기된 가운데 선수 연봉 삭감 이슈와 관련해 공론화를 제안하였음.

입장료 수입, 중계권료, 광고 수입 등에서의 재정적 문제가 전 세계에서 공통적 이슈이며 문제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연봉 삭감 공론화 과정을 갖자는 의견을 공식 발표하였음.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시체육회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본처분 33건, 현지처분 8건 등 총 41건의 부적절한 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남. 식사비 허위 정산, 부적절한 보조금 사업 정산 등이 있음.

*b KB 국민은행

KB국민은행은 13일 노사 협의를 통해 임직원 체육문화행사비 약 35억원을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

신종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을 살리려는 취지이며 실질적인 현장 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할 것이라고 밝힘.



16일 초등학교 4~6학년과 중·고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2단계 온라인 개학이 실시된 가운데 경기도 교육청이 의정부 회룡초등학교의 온라인 개학 모습을 언론에 공개하였음.

줌(ZOOM)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수업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바람을 들어보았는데 "시험 100점 맞기",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기" 등의 의견이 있었으나 코로나19로 갇혀 지내는 시간이 많은 학생들에게서 가장 많이 나온 바람은 "체육활동을 하고 싶다"인 것으로 나타남.